

제주, 휠체어농구 기선제압 나선다

도지사배 24~27일 한라체육관... 7개 팀 출전 지난해 대회 5연패 달성 실패로 '설욕전' 각오

국내 최강 팀인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단장 부형중, 이하 제주)이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의 정상 탈환을 노린다. 특히 도지사배는 전국장애인체전과 2019 KWBL 휠체어농구리그 등 굵직한 전국대회의 전초전으로서 제주는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각오다.

제주도장애인농구협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제주를 포함해 국내의 7개팀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출전팀은 제주를 비롯해 수원무궁화전자, 한국체대, 일본

나가사키 팀(이상 A조)과 서울시청, 대구시청, 고양홀트(이상 B조) 등이다. 조별리그에서 이어 1~2위 팀간의 크로스 경기를 거친 후 우승팀끼리 결승을 치른다. 제주로서는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시청에 발목이 잡히면서 대회 5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 설욕전을 통해 자존심을 세운다는 각오로 고향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제주의 첫 경기는 개막일인 24일 수원전이다.

앞서 지난 2회부터 5회까지 대회 4연패를 달성한 제주는 지난해 6회 대회 결승에서 강력한 라이벌 서울시청에 54-56로 분패하며 왕좌를 잃

었다. 당시 팀 에이스인 김동현이 4쿼터 종료 4분 가량을 남기고 퇴장을 당하며 팀 패배로 이어졌다. 최근 국가대표로 발탁된 제주의 김동현·김호영·황우성 등의 우수한 선수가 있지만 서울시청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해 선수를 대폭 보강하면서 위협적인 팀으로 성장하고 있어 양팀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99년 8월 창단한 제주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정상에 있는 국내 최고의 휠체어농구단이다. 2015~2016 휠체어농구리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대회 4연패를 질주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체 대회 우승, 2015년 4개 대회 우승, 전국장애인체전 4연패, 대구컵 국제초청휠체어농구대회 우승 등이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안 줄 거야” 22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스포츠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2018-2019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4차전 홈 경기에서 밀워키 벅스의 에니스 인테토룬보(오른쪽)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토론토 랩터스는 밀워키 벅스에 120-102로 이겼다. 연합뉴스

FIFA U-20 월드컵 24일 새벽 ‘킵오프’

정정용호 25일 밤 ‘우승후보’ 포르투갈과 F조 1차전 36년 만에 영광 재현 위한 ‘어게인 1983’ 지상과제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2019 FIFA U-20 월드컵이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1시 폴란드 루블린과 그 디니아에서 A조 폴란드-세네갈, B조 멕시코-이탈리아의 경기로 화려하게 개막한다.

통산 22회째를 맞는 올해 U-20 월드컵은 한국시간으로 24일 개막해 내달 16일 폴란드 우치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역대 최다우승팀은 아르헨티나로 통산 6회(1979년, 1995년, 1997년, 2001년, 2005년, 2007년)다. 그 뒤를 브라질이 통산 5회(1983년, 1985년, 1993년, 2003년, 2011년) 우승을 따냈다. 하지만 브라질은 2019년 대회에는 남미 예선에서 탈락했다.

포르투갈(1989년·1991년)과 세르비아(1987년·2015년)가 역대 2회

우승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U-20 월드컵에서 최다 우승에 빛나는 아르헨티나와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포르투갈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F조에서 경쟁하게 됐다.

우승 후보가 두 팀이나 속해 있어 F조는 이번 대회 최고 ‘죽음의 조’로 손꼽힌다.

‘정정용호’는 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 30분 비엘스코-비아와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F조 1차전을 펼치고, 29일 오전 3시 30분 티히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2차전을 치른 뒤 6월 1일 오전 3시 30분 또다시 티히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3차전을 펼친다.

정정용 U-20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달성한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세웠다. 36년 만에 영광 재현을 위한 ‘어게인 1983’이 정정용호의 지상과제다.

정 감독은 이를 위해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을 필두로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공격수 조영욱(수원), 전세진(수원)을 최전방 공격진으로 뽑았다.

김정민(리퍼링), 수비수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골키퍼 최민수(함부르크) 등 유럽파들이 가세했지만 정정용 감독은 이들 중 최다출장 선수인 김현우를 최정용호의 차출거부로 함께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정정용호는 지난 5일 폴란드 현지로 출국했고, 현지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펼쳐 뉴질랜드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이강인의 결승골을 앞세워 에콰도르를 1-0으로 꺾는 등 손조름게 대회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족한 제주패들보드서핑클럽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동호회원을 모집 중이다.

제주패들보드서핑클럽 동호회원 모집

제주패들보드서핑클럽(이하 서핑클럽)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서핑클럽은 제주도

민이 패들보드와 서핑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호회로서 회원을 모집해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 해양스포츠의 강사로 육

성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 청정제주를 위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핑클럽은 현재 회원 100여명에 이르며 올해는 동호회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했다.

패들보드의 정식 명칭은 ‘스탠드업 패들보드(Stand Up Paddleboard)’이며 파도를 타는 서핑뿐만 아니라 요가, 레이싱, 어드벤처 등 보드 위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파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슈트만 착용하면 사계절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위치는 삼양해수욕장 서쪽 작은해변에 자리한다.

문의 010-3007-2260(대표 강형선).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중국 닝보시 “스포츠로 우정 나뉘요”

교류단 12명, 23-28일 제주 찾아 마라톤 출전

2019 제주-중국 닝보시 스포츠교류 초청 행사가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후이하이(닝보시체육국장) 단장을 포함한 스포츠교류단 12명이 제주를 찾아 마라톤대회 출전 등 스포츠교류를 통해 우정의 시간을 갖는다. 26일 제주도 구좌읍 해안도로 일원

에서 펼쳐지는 제24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 대회에 하프코스 7명, 풀코스 2명이 출전하고 워킹코스(10km)에 3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닝보시교류단은 제주스포츠과학센터와 제주월드컵경기장, 강창학구장 등 스포츠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물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성산일출

봉, 주상절리, 약천사, 송악산 등을 관람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방문단은 지난해 중국 현지에서 크로스컨트리클럽 선수 4명 등 교류단 10명을 파견했다. 당시 닝보시체육국을 비롯해 체육인재양성훈련센터를 방문해 양측의 스포츠 교류와 협력 증진을 협의했다. 닝보시 주최로 열린 크로스컨트리경기 남자일반부 18km코스에서 하영현(KAL호텔 조리사)이 1시간53분55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주 수영의 간판’ 문재권 2관왕

수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제주 수영의 간판 문재권(서귀포시청·사진)이 2019 수영(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문재권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

지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선발전 남자일반부 평영 50m 결승에서 27초86으로 1위, 평영 100m에서도 1분00초22로 김재윤(서울시청, 1분01초43)을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다. 문재권은 평영 200m에서도



2분12초75의 성적으로 2위에 입상했다.

동료인 박재훈은 남자일반부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46초90으로 2위, 자유형 800m에서 8분11초51의 기록으로 3위로 각각 끝냈다. 백금탁기자



The 7th Jeju Governor Cup

National Wheelchair Basketball Tournament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기간 : 2019.5.24(금) ~ 27(월)
장소 : 한라체육관

○ 개회식 : 5월 24일(금) 14:00 ○ 폐회식 : 5월 27일(월) 15:30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농구협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전국휠체어농구대회조직위원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JISA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협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Lets Run 제주관광공사 한민체육어임터 제주소수기업진흥원

K-TMA 제주축산산업협동조합 구좌농업협동조합 제주시농협 제주운영농민지원